**[TREND REPORT]**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육아트렌드 ‘하트(HEART)육아’

* **베페, 예술 친화적 육아 스타일 중시하는 트렌드 반영… 키워드 ‘하트 육아’ 선정**
* **오는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업계 최초 아트 콜라보레이션 진행**
* **찰스장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 클래스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아용품 시장규모는 2018년 3조 8000억원 규모로 2016년 2조 3700억원 대비 오히려 성장세이다. 한 명의 아이에게 부모, 외조부모는 물론 이모, 삼촌, 지인까지 한꺼번에 주머니를 연다는 신조어 ‘텐 포켓(Ten Pocket)’도 등장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해진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아낌없는 투자와 전폭적인 지지로 자라나는 ‘VIB (very Important Baby)’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유모차 등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부모의 만족이 우선인 유아용품 구매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실제 사용자인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가 얼마나 제품을 좋아하고 제품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지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페 선정 2019 육아 트렌드 키워드: 하트(HEART)육아**



대한민국 최초, 최대규모 유아용품 전시회 주최사 ㈜베페는 이번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를 앞두고 2019년 육아트렌드 키워드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베페는 아이가 숫자보다 그림, 언어보다 소리를 먼저 배우는 아이의 발달 과정과 우뇌 발달을 도모하는 예술 친화적 체험형 육아 스타일을 중시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 ‘하트(HEART)육아’를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전시 테마를 전개하고자 한다.

‘하트(HEART)육아’는 ‘마음’, ‘심장’을 뜻하는 영어단어 ‘하트 (HEART)’의 각 글자를 따온 말로 ▲나에게 솔직한 (Honest to me) ▲내 아이에게 쉬운 (Easy for my baby) ▲아트와 가까운 (Art-friendly) ▲주목할 만한 발견 (Remarkable discovery) ▲행복한 가족 (Truly happy family)를 의미한다.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트(HEART)육아’는 기존 부모의 취향이나 멋, 주변인의 평판을 중시해 육아용품이나 교육 방식을 선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아기와 제품, 아기와 교구와의 애착관계에 집중함은 물론, 그림이나 예술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의 특성을 우선시 하는 육아 트렌드이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아트 클래스 운영부터 아이가 제품 사용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아티스트적인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이 접목된 아이템 등을 의미한다.

**제 35회 베페 베이비페어, 업계 최초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다**

이번 제 3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해피 하트’ 시리즈로 잘 알려진 팝 아티스트 찰스장과 손잡고 업계 최초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기존 베페 로고에 찰스장 작가의 해피 하트가 어우러져 긍정의 행복 기운이 널리 퍼지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올해의 팬톤 컬러로 선정된 ‘리빙코랄’을 메인 컬러로 사용해 온화한 생명의 에너지를 감성적으로 연출했다.

개막 첫날에는 찰스장 작가가 진행하는 아트 클래스가 개최된다. 관람객 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 베페는 이번 아트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해 찰스장 작가와 협업한 대형 하트 조형물을 활용한 아트 체험 공간도 구성 예정이다. 단순히 전시 관람을 넘어 관람객들에게 이번 전시회 테마인 ‘하트(HEART)육아’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함이다.

**‘오리지널’의 가치로 ‘하트(HEART)육아’를 탄생시키다: 베페 X 찰스장**

육아와 아트. 낯설지만 신선한 이 조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해피 하트’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긍정에너지를 전달하는 찰스장 작가의 작품 속 하트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의 그것을 닮았다. 활짝 웃으며 수줍어하는 그의 하트를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찰스장 작가의 작품을 보며 기쁨과 희망, 행복에너지를 느낀다.

심장 소리, 엄마, 아빠,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할 때, 하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감정의 시작은 ‘하트’라고 찰스장은 말한다. 그것이 하트의 오리지널이며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오리지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자신에게 되뇌며 질문한다. 찰스장 작가는 베이비페어 중 원조이자 본질의 가치를 지닌 베페와의 협업을 통해 하트의 오리지널리티를 투영하고자 했다. 베페 베이비페어가 대한민국 최초의 베이비페어 인 것과 같은 의미이다.

어린 시절 여러 예술작품을 접하며 성장한 찰스장은 이번 전시회 현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즐거운 꿈을 꾸었으면 한다. 아이들은 글씨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다. 물감을 손으로 묻혀가며 선을 하나 그어도 하나의 작품이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첫 예술작품의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작가의 바램이다.

**내가 생각하는 ‘하트(HEART)육아’.. 댓글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 마련**

‘하트 육아’를 주제로 한 ‘나의 하트 육아’ 온라인 댓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2월 24일까지 베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하트 육아’에 대해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06명에게 유모차, 카시트, 범퍼침대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객들을 위한 선착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평일 선착순 입장객 총 4000명에게 ‘밤밤 라군 엘리펀트’를 증정한다. 또한 임산부 중 산모수첩 또는 진료카드를 지참한 선착순 2000명에게 ‘던바이디어 쥬프림 유아식기세트’를 증정한다.

한편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가 직접 원하는 것을 찾고 체험하는 예술 친화형 육아의 축제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2월 21일(목)부터 2월 24일(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B에서 개최된다.

# # # # #